

투데이 칼럼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토**론, 프리젠테이션, 회의 등에서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 이유는 혼자서 말을 이어가는 책임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해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성을 잘해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학습해야 한다. 어떤 상황의 스피치 생활에서도 긴장감이 심해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다섯 가지 기본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주제를 말하라. 시작할 때 간결하게 핵심 주제를 말해야 한다. 시작이 길어지면 전체적으로 지루해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말 해 주는 것이다. 둘째, 이유를 설명하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정답만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계속 반문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전체 토론,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 왜 그 주제인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처음과 중간 내용의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셋째, 사례를 들어라. 모든 말하기의 성패는 구체적 사례에 달려 있다. 이유에 대한 확실한 근거이자 본문을 보여 주기 위해서 주제와 합당한 사례를 잘 들어 일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말하기가 어렵다면 이야기의 3요소 즉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말해보면 된다. 사례를 들 때는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고 듣고 느낀 경험담도 좋다.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있다. 넷째, 느끼고 깨달은 점을 말하라. 경험하고 생각이나 느낌, 남는 것, 얻는 것, 변화된 것 등 내면의 해석을 말하면 된다. 자신의 느낀 점을 말하기의 필수조건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느낀 점은 마무리할 때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준다. 느낀 점은 말하는 습관을 스스로 길들여야 한다. 다섯째, 결론을 지어라. 결론만 잘 말해도 앞의 실수를 만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 때

네 가지가 큰 도움을 준다. ① 반복이다. 반복은 주제를 강조할 때 아주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강조 하든지 정확하게 짚어 주는 것이다. ② 요약이다. 이야기한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주제만 한 번 더 정리해 준다. 전반적으로 말이 길어질 때 사용하면 좋다. ③ 느낀 점이다. 무엇을 느끼고 남기고 열고 변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 하며 마무리 한다. ④ 강한 감동적인 인상이다. 마지막에 명언, 격언, 시, 노래 같은 큰 울림을 주는 말들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사람의 만남에서도 헤어질 때 감동을 주어야 하듯이 스피치 생활에도 감동적인 인상을 주어야 머리에 각인된다. 일상적으로 말 할 때 말하기 다섯 가지 기본 구성을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센스 있게, 자신 있게, 논리정연하게 스피치 생활하여 호감 받고 능력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사설

부동산 대책의 실상

부동산 문제가 대신 정국에도 여전히 최대 이슈다. 국내에서 거래가격이 가장 비싼 이른바 '뽕뽕한 한 채'는 서울의 한남더힐 아파트다. 이곳엔 어느 재벌 그룹 회장이 가장 폭대기에 살고 다른 그룹 전 회장 집도 있다. 어떤 그룹 일가는 6채를 보유 하고 있다. 어느 회장도 최근 2채를 샀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공무원들도 집을 매입 했다. 한남더힐은 최고가 82억 원, 전체 거래액이 2조1,547억 원에 이른다. 집주인 3명 중 1명은 현금을 내고 산다.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쏟아 낸 부동산 대책들이 과연 이 최고가 아파트에 적용이 됐을까 궁금하다. 어느 입주자는 재벌 그룹 회장한테 70억 원을 빌려 지난 4월 한남더힐 한 채를 샀다. 그는 지난 3월 그 옆 동 한 채도 샀다. 사실상 3주택자이다. 그런데 한

남더힐 한 채가 법인 명의라서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됐다. 한남더힐에서 '법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즈음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규제책이 나왔을 때이다. 부동산 시장은 9.13 '중부세 중과' 철폐를 맞고 얼어붙었지만 한남더힐은 법인 거래로 응답했다. 한남더힐 매입이 목적인 듯한 실제 불명 법인도 등장했다. 2019년 말 정부는 법인 규제에 나섰다. 이번에는 집주인 일부가 '신탁'으로 맞았다. 정부는 지난 해 7월이 돼서야 신탁 필수를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하는 규제책에 한남더힐 주인들은 증여로 응답했다. 한남더힐 30대 이하 소유자 85명 중 17명은 증여로 받았고 68명은 직접 샀다. 최연소는 2019년생, 두 살이다. 거래를 전수 분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을 짚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여론이 광배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도 줄이지 않고 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국내 어느 포털 사이트 기업의 40대 직원은 진상 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수많은 구성원들이 어느 임원으로부터 동일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최근 청소년자가 숨진 어느 대학 내 괴롭힘도 논란에 휩싸였다. 청소년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건물 준공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다. 과연 직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실 그런 일은 애초에 있어선 안 된다는 비난이 높다. 결국 고용부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대학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고 건수를 봐도 지난해 5천8백여 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9백 건이 넘었다. 다른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벌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넣으면 되는 일이다. 법의 허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과는 달리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도 한계로 지적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너무 무서웠어요"



26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디미시 마을의 베델 침례고등학교에서 이달 초 납치됐다 풀려난 한 학생이 재회한 부모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이 학교 학생 120여 명 중 28명이 석방돼 부모 품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범인들은 학생 한 명당 한화 약 140만 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 '이파' 대비, 모래주머니 나르는 주민들



25일 중국 저장성 동부 후저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제6호 태풍 '이파'에 대비해 강둑을 보강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나르고 있다. 중국 기상국은 이날 정오경 강력한 '이파'와 관련해 오랜지색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 주의를 당부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